

茶山 易學의 의학적 응용

임명진 · 김병수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Application of Dasan's I Ching for Oriental Medicine

Myung Jin Im, Byung Soo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The medicine through I Ching(The Book of Changes, 易經) is a field of the medical science, which studies physiology, pathology and Yin-Yang philosophy. From ancient times so many scholars have studied I Ching and they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school. one is the school of Image and Number(象數學派), the other is the school of reason(義理學派). Dasan Jung Yak-Yong(茶山 丁若鏞) is a distinguished scholar in the I-Ching study, and he had a unique opinion in the analysis about sentences of I Ching. He has done his best to make 'Image and Number(象數)' harmonize with reason(義理). I Ching is the book about changes, which includes everything like natural phenomena, human body and mind. So we can understand human physiology and pathology through I Ching.

Key words : Dasan Jung Yak-Yong(茶山 丁若鏞), I Ching(易經), 14 Bi-Gua(14辟卦)

서론

易의 형성은 일설에 의하면 복희씨가 팔괘를 지었다고 하며, 이후 易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달고, 실제 생활에 응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張景岳·李梴 등은 醫易同源을 주장하였다.

易을 연구하는 학파에 대하여 흔히 크게 상수역파와 의리역파 두가지로 나눈다. 象數易은 우연의 세계인 '卦象'의 세계를 필연적이고, 數理적인 원리로 설명하려는 분야¹⁾를 말한다. 그동안 의학이라는 실용학문에 적용시키는 데는 주로 상수역이 응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易序」²⁾에 “易이 책으로 이뤄짐에 있어서 卦爻와 象象의 뜻이 갖추져 천지와 만물의 情狀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즉, 상수와 의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천지만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卦와 爻가 나타내는 상수학적인 의미와 卦사와 爻사가 표현하는 의리학적 의미가 동시에 연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역학의 의학적 응용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주역」 자체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이다. 이러한 시도를 행한 역학자 중의 하나로, 19세기를 살면서 독특한 견해를

펼친 茶山 丁若鏞(1762~1836)을 들 수 있다. 다산은 「周易四箋」에서는 納甲과 納支에 의한 해석을 배제하고, 오직 「設卦傳」을 근본으로 한 '物象論'과 先代의 卦變論을 발전시킨 '推移論', 여섯 개의 爻 중 일부 爻들만으로 卦를 만들어 새로운 상을 만들어 내는 '互體論', 한 卦 안에서의 변화를 강조한 '爻變論' 등 네 가지의 방법론을 기동으로 해서 易辭를 해석해 나갔다. 이들 네 가지를 '易理四法'이라고도 한다.

이에 다산 정약용의 「周易四箋」에서 풀이한 卦爻사의 의미를 생리·병리에 응용해 봄으로써 역학의 의학적 응용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14辟卦의 경락과 장부배속

추이의 법칙³⁾에 의하면 12辟卦에서 乾坤을 제외시키고, 中孚와 小過의 再闢之卦를 넣어 12辟卦를 만들어야 한다. 14辟卦 중에서 乾·坤·中孚·小過卦는 天·地·水·火를 상징하는 특별한 卦이다. 乾·坤卦는 모든 卦의 부모가 되니 어느 하나의 장부나 경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01/31 · 수정 : 2005/02/25 · 채택 : 2005/03/31

1) 주역계사전 강의록, 도올 김용옥.

2) 아산학회편, 주역, 소강, 2002, p. 13.

“易之爲書 卦爻象象之義備而天地萬物之情 見”

3) 임명진·강정수, 다산의 역학 해석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3권 2호, 2004, pp. 89-94.

락에 배속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하지만 奇經八脈에서 任·督脈이 乾·坤卦와 유사하고, 각각 陰氣와 陽氣를 총괄하니 乾卦와 坤卦는 督脈과 任脈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자리가 비게 되는 乾의 자리 巳火에는 中孚卦가, 坤의 자리 亥水에는 小過卦가 배속된다.

표 1. 벽괘와 12지지에 따른 장부·경락배속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장부	腎	脾	膽	肝	心包	小腸	心	胃	大腸	肺	三焦	膀胱	
시간	足少陽經	足厥陰經	手太陽經	手陽明經	足太陽經	手少陰經	手太陽經	足太陽經	足少陰經	手厥陰經	手少陽經	足少陽經	
경락	陽明經	陰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陽明經	
육기	足少陰經	足太陽經	手少陽經	手陽明經	手厥陰經	手少陰經	手太陽經	足少陽經	足太陽經	足少陰經	足厥陰經	足少陽經	
辟卦	復	臨	泰	大壯	夬	乾	中孚	姤	遯	否	觀	剝	坤

2. 추이법을 응용한 장부의 생리

표 2. 벽괘와 연괘의 추이법에 있어서 장부의 관계

一陽之卦	一陰之卦	二陽之卦	二陰之卦	三陽之卦	三陰之卦
復 剝	姤 夬	觀 臨	比 大壯	遁 睽	泰 否
신 삼초	심 심포	少過 방광	中孚 소장	泰 담	否 대장
師 謙 豫 比	同人 履 大有	小畜 大有 萃 坎 震 蒙	升 坎 蒙 明 夷 屯	大畜 離 需 鼎 大過 无妄 家人 訟 鼎 大過 離 豐 節 恒 既濟 歸妹 漸 益 未濟 困 噬嗑 渙 咸	隨 渙 困 咸

추이법은 다산역화의 근간이다. 12辟卦(乾坤을 제외한)에서 추이되어 50衍卦가 나오는데 復卦와 剝卦, 姤卦와 夬卦는 辟卦이면서도 衍卦가 되는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地雷復卦의 初九가 추이되어 二爻로 가면 地水師卦가 되고, 三爻로 가면 地山謙, 四爻로 가면 雷地豫, 五爻로 가면 水地比卦가 되고, 六爻로 가면 山地剝卦가 된다. 이는 剝卦의 추이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즉, 두 괘는 추이에 의해 상호전화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인데, 一陰之卦인 姤卦와 夬卦도 마찬가지이다. 기타 二陰, 二陽之卦와 三陰, 三陽之卦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장부의 관계에서 볼 때, 一陽之卦와 一陰之卦에 속하는 腎臟과 三焦, 心과 心包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다. 신장은 精을 갈무리하고, 삼초는 腎精을 기화시킨다. 심은 神明을 주관하고, 양기를 발산시키는데, 심포는 권음의 기운을 받아 脈管기능을 주관한다⁴⁾. 二陽之卦는 肺·脾·膀胱으로 수액대사를 주관하고, 二陰之卦는 肝·胃·小腸으로 수액대사를 주관한다. 三陽之卦는 膽이 배속되고 膽은 결단하는 시초이며⁵⁾, 三陰之卦는 大腸이 배속되는데 大腸은 傳導之官으로써 탁기를 배출하여 天氣를 땅으로 下達시킨다⁶⁾.

3. 一陰·一陽之卦의 생리와 병리

一陰·一陽之卦의 卦辭와 象, 象傳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 보

4) 朴錫紀, 삼초의 장부계통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p. 5.
5) 李榭, 관주의학입문,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 325-326.
6) 송집성, 醫學輯要, 문경출판사, 1992, p. 185.
7) 이하의 모든 易辭해설은 「주역사전」의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문장을 일부 편집했으므로 원문은 생략하였다.

고, 이를 통한 의학적 응용을 모색해 본다. 괘사와 단전, 상전은 괘의 총체적인 해석이므로 함께 묶어서 보았다. 卦辭는 효가 불변했을 때의 占辭이므로 爻變이 쓰이지 않아, 추이·호체·물상론만을 이용하였다. 추이의 母卦가 되는 벽괘들의 卦辭는 交易·反易의 상을 이용해서 지어졌다.

4. 一陽之卦의 추이과정

표 3. 一陽之卦의 추이과정

☳	☱	☶	☲	☵	☴
地雷復	地水師	地山謙	雷地豫	水地比	山地剝

1) 地雷復

(1) 復卦는 亨통하고 출입에 질병이 없으며 벗들이 오더라도 허물이 없다. 그 도를 반복하여 7일만에 돌아와 회복하고 갈 바가 있음에 이롭다.

① 復의 下卦가 震이며, 震은 큰 길이 되는데 ㉞앞이 띄어 있으니 '형통하다.'고 하였다.

② 一陽之卦인 師卦, 謙卦, 豫卦, 比卦는 모두 내부에 坎이 있어 坎疾(心病)을 얻는데 오직 剝卦와 復卦는 끝끝내 坎을 이루지 않으니 '질병이 없음'이다. 剛劃이 外卦에 있으므로 양이 나간 것은 剝卦가 되고, 剛劃이 內卦에 있으므로 양이 들어온 것은 復卦가 되니 '출입에 질병이 없음'이다.

③ 또 하늘의 운행은 전년의 동지인 復卦로부터 臨卦가 되고 泰卦가 되어 六位를 거쳐 四月卦인 乾卦에 이르기까지 끝끝내 坎을 이루지 않으며 (운행하기를 震道⁹⁾로 한다) 이제야 돌아와 회복하니(금년의 동지이다) '출입에 질병이 없음'이다. 즉, 모두 坎이 없다.

④ 길 떠나는 자가 筮占을 쳐 이괘를 얻으면 갔다 되돌아오는 것이 평안할 것이다.

⑤ 剝卦일 때엔 아래의 다섯 음획인 坤朋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 소인의 벗들이었으나(艮은 소인이다) 지금 위의 다섯 음획인 坤朋이 ㉞되돌아오는 것은 모두 군자의 벗들이니(震은 군자이다) 비록 온다고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剝卦와는 다른 것이다)

⑥ 그 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四時가 밀어 옮겨짐이다. 姤卦는 한 음이 처음 생겨나 初位에 양이 없어진 것인데 遯卦가 되고 否卦가 되었다가 剝卦가 되고 坤卦가 되니, ㉞초위에 陽劃이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이제야 되돌아오는데 한 괘를 一日로 보아 이미 七日이 지났다. 七日이란 일곱 달이니 이것을 일러 '七日만에 돌아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 도란 震道이다. 즉, 큰 길이 된다.

⑦ 震道는 막힘이 없으니, 갈 바가 있음에 이로운 것이다.

(2) 象에서 말하기를 "'復亨'은 剛이 되돌아오이니, 剛이 움직여서 순리적으로 행함이라. 이것이 '出入无疾朋來无咎'이다. '反

8) ㉞와 같은 알파벳이 붙은 문장은 생리, 병리로서의 해석이 이뤄지는 부분이다. 아래의 【생리】, 【병리】에 해설을 붙여놓았다.
9) 다산은 乾의 爻辭에 음이 쓰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復에서 시작하는 양의 기운, 즉 震道가 전진하는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復其道七日來復'은 하늘의 행함이고, '利有攸往'은 剛이 자라나는 것이니, 復에 그 천지의 마음을 볼 것인저!"라고 하였다.

① 復은 剝을 뒤집은 반대괘이다. 剝이 剛으로써 멈추었다면(艮은 멈춘다) 復은 剛으로써 동하니(震은 동한다) 이것은 剛이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坤의 순함이 먼저 있으니 이로써 순하게 행한다.

② 姤로부터 復에 이르기까지 일곱 개의 괘를 지나오는데 양이 다시 사는 것이 마치 하지가 동지로부터 칠 개월을 지나 양이 다시 사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일러 '天行'이라고 한다.

③ ④지극히 어진 것은 천지의 마음이다.(사물을 살리려는 마음) 震은 곧 어짐이 되니(동방괘이다) 이에 그 마음을 안다.

(3) 象에 말하기를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이 復이니, 선왕은 이를 본받아서 동짓날에 관문을 닫아 행상하는 나그네를 다니지 못하게 하며, 임금도 지방 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① 一陽이 처음 생하니 그 날짜가 동지이다. 괘는 剝과 더불어 반대의 괘이니 剝의 시기에 위에 한 개의 나무가 가로로 놓여 있어(상괘의 一剛) 艮門이 높여 열려 있다. 반대의 復卦는 아래에 한 개의 문설주가 가로놓이고 모름지기 문의 형태가 없으니 관문을 닫는 것이다.(월령의 동지, 하지는 모두 관문을 닫는다) 震은 행인이 되니 이것이 행상하는 나그네이다. ②坤의 마을 안에 행인이 깊이 기거하니(震이 내괘에 있다) 행상하는 나그네가 다니지 않는다. 또한 震은 사람의 주인이다. 밖으로 돌며 다니는 것을 일러 '省方'이라고 하는데, 지금 震은 안에 있어 ②곤의 마을을 나오지 않으니 임금도 지방순시를 하지 않는다.

【생리】 ④ 復卦는 생명의 탄생으로 胎氣가 생긴 것이며, 下卦의 震은 「說卦傳」에서 '反生'으로 표현되었듯이 생명이 다시 시작하는 상인 것이다. 순음체인 坤, 絶地에서 命門火가 태동하였으나 아직은 함장된 상이다. ⑥ 함장되었을 때는 명문이라고 불리우는데 腎精이 기화되어 上中下焦 전신으로 작용하는 것을 三焦라고 한다. 삼초의 작용으로 말초 끝까지 발산되었던 원기가 다시 下焦命門의 자리로 수렴된 상이다. ③ 子時에 用事하는 足少陽膽經의 기운은 午時이후에 7時辰이 지나야 다시 왕성해진다. ④ 생명의 기운인 仁이 자라나는 것으로 肝의 少陽之氣가 성한 때이다.

【병리】 10) ⑥ 명문의 양기가 부족한 腎陽虛症이나 회복기에 있어 섭생을 잘하면 예후는 좋다. 동지에 만물이 침잠해 있듯 할부로 과로하거나 방사하는 것을 금하여 양기소모를 막아야 한다. ③ 長久한 병이 있는 즉 차차 회복된다. 地雷復은 一陽이 五陰의 아래에서 회복되니 陰多陽少라. 고로 增益歸茸湯, 鹿茸大補湯으로 치료한다.

2) 地水師

(1) 師는 바르게 해야 하니, 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① 師가 바르다는 것은 바르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군사이기 때문이고, 무릇 군사의 일은 오직 장인이어야 길하다.

② 괘가 復과 剝卦로부터 왔는데, ④震은 장남이므로 復의 一陽은 丈人이다. ⑥艮은 소남이므로 剝의 一陽은 小人이다. 군사의 일은 전진은 있으나 후퇴는 없다. 후퇴는 곧 패배이므로 剝의 一陽이 후퇴하여 안으로 돌아오니 이것은 소인이 패한 일이다. 復의 一陽이 전진하여 밖으로 향하니 이것은 장인이 공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의 일은 오직 장인이어야 길하다고 한 것이다. 출사하여서 이 괘를 만나면 반드시 모두 길하니 ④책임 맡은 자가 군자(復卦의 震長男)이면 군사는 반드시 공이 있고, ⑥임무 맡은 자가 소인(剝卦의 艮少男)이면 군사는 반드시 그르치게 된다. 만약 나이로써 말한다면 소년이 장차 숙달된 장수와 같지 못한 것이니 趙括廉頗¹¹⁾의 고사와 같다. 이것을 일러 장인이 길하다고 한 것이다.

③ 괘가 剝卦로부터 오면 상호 艮이 지름길을 의미하므로 ③ 시작부터 흥미하여 길을 잃었다가 지금 그 중을 얻으니 역시 길을 얻은 것이다. (互卦가 震道이다) 이로써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2) 象에서 말하기를 "師는 무리요, 貞은 바른 것이니, 능히 여러 사람으로써 바르게 하면 기이 이로써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것이 가운데 해서 응하고 위험을 행하여도 순종하니, 이로써 천하를 괴롭히지만 백성은 이에 따르니, 길할 뿐 또 무슨 허물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① 역의 도 뒀이 오직 바른 일에 점을 칠 때뿐인 고로 일은 바름이 된다. 貞은 바르다는 것이다. 乾坤坎離는 괘형이 편벽되어 기이한 것이 없어 正卦이다. 四正卦중에 일을 주관하는 것은 坎卦이다. 괘에 坎貞이 있는 것은 바르기 때문이다. 五陰은 무리가 된다(坤은 무리, 백성이 된다). 능히 무리로서 바르게 한다. 나의 덕이 중정하니 사물이 이내 돌아온다(說卦傳에 坎은 돌아오는 것이라 했다). 무리가 돌아가는 곳이 곧 왕이다.

② 二爻와 五爻가 서로 함께 하니(五爻가 柔하다) 剛이 중에 있으면서 응하였다. 震은 행하고, 坤은 순하니(下互卦가 震이다) ③행함이 험난하나, 이내 순하다. 坤土에 坎險을 베푸니 천하에 독소이다. 重陰이 순하게 돌아오니(坎은 돌아오는 것이 된다) 백성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3) 象에 말하기를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師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坎은 만물이 돌아가는 곳이므로 坎의 궁실에 坤民이 돌아온다. 이것이 백성을 포용하는 것이다. 또한 坎은 무리가 된다. 坤이 이로써 그것을 기른다(說卦의 문장). 옛날에는 병사가 농가에 의지해 머물렀다. 坤田의 안에 집인 坎이 있다. 이것이 ④師卦가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르는 까닭이다.

② 골짜기 구멍 안에 샘이 가득 차서 넘치니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 역시 실제 이치에 가깝다. ④땅과 물이 서로 포용하고, 서로 기르는 상이다.

【생리】 ④ 명문상화가 하초에 작용하여 하초의 分別淸濁, 決瀆의 기능이 이뤄진다. 이는 삼초상화기능이 원활한 것으로 坤腹의 아래에서 坎의 腎, 膀胱기능이 원활한 것이다. 하초 신장 수기

10) ⑥표시가 있는 【병리】의 처방과 병증은 「역리철학」에서 발췌했으며, 필자의 의견은 알파벳 밑에 기술하였다.

11) 전국시대 조(趙)나라 때 조괄(趙括)은 명장이었던 아버지의 병서를 맹목적으로 읽은 인물이다. 진(秦)나라가 쳐들어오자 엄파(廉頗) 대신 장수가 돼 전장에 나간 그는 일기응변을 모르고 병서의 가르침대로만 전쟁을 치르다 참패하고 만다는 고사.

가 차오르는 상이며, 腎精이 튼튼하다.

【병리】 ⑥ 상초기가 하함하여 피부, 주리에 작용하던 상초의 기가 급격히 약해지니 水土不和의 상태가 이뤄진다. ⑦ 師卦는 地順坎險하여 坤土가 坎腎水를 극하여 병이 되니 임질, 성병인 경우엔 禹功散과 五淋散을 합방하여 치료한다. ⑧ 처음에는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내 불화하였던 水土의 기운이 화합하여 치료된다. ⑨ 脾와 腎臟의 관계는 협조와 견제의 두 작용이 있어서 脾土氣가 너무 강하면 水氣를 억제하지만 수액대사에 있어서 腎精을 기화시켜 상승시키면 脾臟은 이를 운화시킨다.

3) 地山謙

(1) 謙은 형통하니 군자가 마침이 있는 것이다.

① 剛이 위에서부터 와서 양이 음 가운데에 있으면서 스스로 빛나니 離의 위치(伏體)가 광명하다. 剛이 아래로부터 오르니, ② 震道の 앞이 통한다(상호괘). 그 점이 형통하다.

② 復의 시기에 만물이 震에서 시작하므로 震의 군자는 시작이 있을 뿐이었다. 추이하여 謙이 되었을 때 ③ 만물이 艮에서 마치듯이 艮은 마침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군자에게 마침이 있다.

(2) 象에 이르기를 “謙亨은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와 광명하고, 땅의 도는 낮은데서 위로 올라간다.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비게 하고, 겸허한 것을 더해준다.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며 겸허한 데로 흐르고,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허함에는 복을 준다.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하니, 겸은 상대를 높임으로써 빛이 나고, 낮추되 넘지 아니하니, 군자의 마침이다.”고 하였다.

① 剝의 일양이 있는 오, 육효는 본래 하늘의 자리인데, ②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에서 坎의 내를 이루니 (내를 건너는 상이 있다)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離의 밝은 자리로(伏體) 음의 가운데 양이 오니 밝음이 있다. 이것이 광명이다. 復의 一陽은 본래 일, 이효의 땅의 자리에 거처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중간에서 震道를 이루었다. 震은 행하는 것이니 땅의 도가 위로 행한 것이다. 실제이치로 증험해보면 ④ 태양이 땅을 비춰 만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離의 상이고, 대지의 증기가 초목을 기르는 것, 이것이 땅의 도가 위로 행하는 것으로 震의 상이다.

② 剝이 괘됨에 一陽이 스스로 머리위에 올라있어 천하에 가득 차 넘쳐 자만하는 것이 剝만한 것이 없다. 復의 一陽이 귀하지만 음들을 싣고 아래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천하에 겸손하고 낮추어 내리는 것이 復만한 것이 없다. 天地, 神明, 사람이 채워져, 겸손한 것을 싫어하지 않음이 없는 고로 艮의 차있음을 무너뜨려 누르고, 震의 겸손함을 일으켜 떨치니 이로써 이괘를 이룬다(地山謙卦). 이것이 剝을 비게 하고, 復을 더하는 것이다. 剝을 변하게 하여 復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剝을 해치고, 復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剝을 미워하고, 復을 좋아하는 것이다. 착한 것에 복을 주고, 음탕한 것에 재난을 내리는 이치가 비록 막연하여 밝지 않은 것 같지만 자만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한 것이 이익을 받는 것을 드러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③ 가득 차면 반드시 없어지고, 겸손하면 반드시 존중되니,

스스로 위에 있는 자는 남들이 아래로 하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사람들이 위로 높인다.

④ 귀신은 艮이다. 사람의 도는 震이다. 사람의 주인은 위엄과 복에 대한 권능을 부리니, 이것 역시 剝과 復에서 상을 취한 것이다.

⑤ 謙의 一陽이 내괘에서 위에 있어서 離光(1, 2, 3효)을 두텁게 하니, 이것이 존중하면서 빛이 나는 것이다. 중괘로서는 아래에 있어서 艮의 경계를 이루니(艮은 城이 된다) 이것이 낮추되 넘지 아니한 것이다.

⑥ 艮은 곧 마침이 되고, 군자의 마침이 된다. 謙의 덕은 군자가 소위 마지막까지 행동하는 바이니(震은 행동함이 된다) 이로써 그 덕을 이룬다.

(3) 象에 말하기를 “땅속에 산이 있는 것이 謙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데에 더해 주어 물건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剝¹²⁾는 줄인다는 것이고, 깎아내는 것이다. 괘가 剝으로부터 왔는데, 剝의 시기에 五陰이 아래에 있어 많은 것은 음이고, 적은 것은 양이었다. 추이하여 謙이 된 즉 五陰 중에 그 一陰을 줄이고, 이 一陽을 주니 많은 것을 줄이고, 적은 것을 더했다. 이를 칭하여 ‘衡秤(형칭)’이라고 한다. ② 剝의 시기에 五陰이 치우치게 모여 그 상이 균등하지 않다가 추이하여 謙이 된 즉 五陰의 가운데에 횡목을 놓으니(상효의 剛) 坎의 법도(互體)로써 저울질하는 것이다. 물건의 상을 일컫는다. 이때에 그 음을 균등하게 나누니 위로 돌을 얻고(상효의 一陰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래로 그 돌을 얻으니 물건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

【생리】 ③ 명문상화가 상승하여 중초비위의 수곡대사가 이뤄지고, 膽相火를 자양하여 간담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시작한다. ④ 하복의 營血이 간으로 수렴되는데, 下卦 艮止는 상승수렴의 극이자, 발산상승의 시작이다. ⑤ 피부로 발산되었던 양기도 비위와 간으로 수렴되는 상이다. 하호괘의 坎水는 精血의 상이다. ⑥ 하초와 상초의 기능이 각각 하강, 상승하여 중초로 돌아오니, 각 장기가 겸손하고, 조화되는 상이다. ⑦ 양기가 皮膚腠理로 발산되어 내부는 허하다. 영혈의 수렴가강되어 간에 저장되는 것이 과불급없이 적당히 이루어진다.

【병리】 ⑧ 성병과 혹 요통에 주의해야 한다. 謙卦의 兩互作卦는 雷水解卦인 고로 坎水인 신장에 성병이 생긴다. 禹功散과 五淋散을 합방하여 치료하고, 요통에는 立安散으로 치료한다.

4) 雷地豫

(1) 豫卦는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동원함에 이롭다.

① 豫卦는 復卦로부터 왔는데, ② 震主를 올려 높여서 坤國에 임하게 하니 ‘제후를 세움에 이로운 것’이요, 震帥가 앞장서서 나아가 적국을 줄어둘게 하니 ‘군대를 동원함에 이로운 것’이다. 진은 행동하는 것이다.

(2) 단에 이르기를 “豫는 강하게 응하여 뜻이 행하고, 순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豫이다. 豫는 순으로써 움직이므로 하늘과 땅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후를 세우고 군사를 움직이는데 있어서라. 하늘과 땅이 써 순하게 움직이는 지라. 그러므로 해와 달이 지나

12) ‘貞(부)’는 혹 ‘搖’로 쓰기도 하는데 이긴다는 것이고, 깎는다는 것이다.

치지 않고 四時가 어긋나지 아니하고, 성인이 순한 것으로써 움직인다. 곧 형벌이 맑아서 백성이 복종하나니, 豫卦의 時義가 가장 큼이라”고 하였다.

① 강하게 응하는 것은 복의 시기에는 이미 그러했듯이 초효와 사효가 더불어 응한 것이다. ⑥坎의 뜻이 두루 통하여(상호괘) 비로소 진도를 만나니 그 뜻이 행해진 것이다.

② 박의 일양이 하늘의 자리에 있고, 복의 일양이 땅의 자리에 있으므로 천지는 박과 복을 이른다. ③박과 복이 추이하였는데 곤의 순함을 잃지 않고 순함으로써 움직였다. 박이 아래로 추이되었으나 離의 위치(伏體)로 넘어가지 않았고, 복이 위로 추이되었으나 坎의 위치(伏體)를 지나치지 않았으니 일월(坎離)을 벗어나지 않았다. ④곤음이 이미 극에 달했고, 진양이 이내 생하였으니 四時의 시작과 끝이 어긋남이 없다.

③ 사람의 자리인 3, 4효에 있는 성인은 震主이다. ⑥坎의 법칙(상호괘)이 가운데서 곧아서 곤의 백성이 모두 순하니 형벌이 맑아서 백성이 복종하는 것이다. 坎의 돌아온다는 것은 곧 복종하는 것이다.

(3) 象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땅위로 분출해 나오는 것이 豫이니, 선왕은 이를 본받아 예악을 만들고, 덕을 숭상하여 상제에게 성대히 제사를 지내고 이로써 조상을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① 떨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진동하는 것이다. 卦가 復이었을 때는 震의 착한 울음이 땅바닥에 가라앉아 높이 오르지 못하다가 추이하여 豫가 된 즉, 우리가 지상으로 나온 것이다. 빠르게 펼쳐 휘날리는 것이 ‘奮豫’인 것이다. ①艮으로써 절제하니(하호괘) 절도가 있는 민족이 되고, 坎으로써 법령을 세우니(상호괘) 울려가 조화된다. 이것을 일러 예악을 만든다고 한 것이다. 兩剛이 이미 올라가 坎의 덕이 이내 존중되니 이것이 덕을 숭상함이다. 坎의 술과, 坤의 희생물이 震의 상제에게 진상되니(상제는 震에서 나오므로¹³⁾) 상제에 대한 성대한 제사이다. 卦가 또한 剝으로부터 오니 艮의 종묘¹⁴⁾와 조상이 있는 바이다. 추이하여 豫가 되어 復과 剝의 兩剛이 합쳐진 것이 종묘의 신이 상제에 합해져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과 같다.

【생리】 ① 명문상화가 脾陽을 자양하여 중초에서 腐熟된 진액을 운화시키는데 간담의 升發之氣를 이용하여 심폐로 상승시키게 된다. ② 양기는 항상 혈과 진액을 추동시켜서 이동하는데 수렴되었던 영혈과 부속된 진액이 상호체, 坎의 상이다. ③ 심폐의 힘으로 발초까지 발산했던 양기가 중초로 수렴되는데 하초가 안정되어 순하게 수렴되었다. ④ 간에 수렴되었던 영혈이 다시 상승, 발산하는 과정이다. 하초에서 중초로의 수렴이 다시 상초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⑤ 상승하려는 영혈, 진액은 기화된 霧露之漑의 형상으로 띠고 있으므로 坎의 법칙으로 곧다고 하는 것이며, 臍은 淸淨之府로 精汁을 배설하니, 결단하여 따르는 상이다. ⑥ 간으로 수렴되어 정제된 營血과 하초에서 올라온 霧露之漑가 肝陽, 脾陽으로 안정되게 운화, 상승되고, 정습배설이 잘 조절된다.

【병리】 初九의 命門相火가 四爻의 중초로 올라간 것으로 震木이 坤土의 위에 서니 木土不和의 상이다. 비위는 중화의 기운을

쓰며, 승강의 樞機역할을 하는데 위에서 동하는 기운이 강해서 중초가 급박해진다. 따라서, 복통이 발생한다. 또한 臍相火가 상승하여 怒氣가 발동한 상이다. ⑦ 급병은 불리하고, 구병은 점차 나아진다. 豫卦는 坤腹이 震動하니 복통이라 식체복통엔 香砂養胃湯, 蟲腹痛엔 安蛔理中湯, 팽창복통엔 托裏消毒散과 香砂平胃散 合方하여 치료하되 靈砂 2분을 細末하여 調服한다.

5) 水地比

(1) 比는 길하니, ‘原筮’는 元하고 永하고 貞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편안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오는 것이니, ‘後夫’는 흉할 것이다.

① 比가 길하다는 것은 ②坤의 신하와 친밀하여 순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君道의 길함이다.

② ‘原筮’라는 것은 다시 짐치는 것을 말한다. 蠱卦의 법은 팔괘로 小成하니 이는 初筮이다. 거듭하여 外卦를 얻은 것을 再筮한다고 한다. ③再筮하여 상괘의 坎을 얻었고, 坎은 바른 것이 되니 原筮는 바르다고 하였다.

③ ‘元’은 만물의 시작이다. ‘永貞’은 일이 오래도록 긴 것이다. 일의 마침은 坤에서 하는데 하괘가 지금 坤이다. 상괘인 坎의 공은 바르고 견고하고, 일을 주관하는 卦이다. 상괘는 본래 坤인데 坤의 덕이 한정이 없으니 그 상이 영원하다. 卦는 본래 復으로부터 왔으니 ④震으로써 시작한 것이 ‘元永貞’ 즉, 시작하여 오랜 일이다.

④ 卦는 剝으로부터 왔는데, 양이 六爻의 자리에 있으니 본래 자기 자리가 아니다. 지금 五爻로 내려가니 ⑤음양이 모두 그 자리를 얻었고, 이로써 허물이 고쳐져 없다.

⑤ 坎은 수고로운 卦이다. (說卦의 문장¹⁵⁾) 五爻는 임금의 자리이니 君道가 근심한다. 이로써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본래 五陰이었던 坤의 만백성이 물이 땅을 따르는 것처럼 坎이 되어 돌아와 따르니 편안하지 않으나 돌아온다.

⑥ 夫의 卦됨이 乾으로써 태를 배필삼은(澤天夫), 즉 첩을 얻었다고 하고, 剝의 卦됨이 坤으로써 艮을 배필로 삼으니(山地剝) 이것이 ‘後夫’이다. 즉, 乾이 첩을 얻는 것처럼 坤도 그러한 것이다. 比卦의 양호괘는 剝이다. 艮의 배필은兌이므로 比는 그 짝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늦은 지아비는 흉하다.

⑦ 學圃가 이르기를 剝은 썩로부터 변하여 왔는데, 썩의 시기에 乾坤이 배합되었다가 乾이 이미 망하였다. 이내 艮夫를 배필로 하니 ‘後夫’인 것이다.

(2) 象에서 말하기를 “比는 길한 것이며, 比는 돕는 것이니, 아랫사람이 순하게 따르는 것이다. ‘原筮, 元永貞, 无咎’는 九五의 강이 득중하였기 때문이요, ‘不寧, 方來’는 위와 아래가 서로 응하기 때문이요, ‘後夫, 凶’은 그 도가 다했기 때문이다.”

① 比가 길함은 신하가 따르고 보필하여 신하와 친함이다. 수레바퀴가 바퀴살을 버리지 않으니 임금은 반드시 신하와 친함이 있다. 그 뜻이 하나인 것이다. 坎의 수레(說卦의 상) 아래에 坤으로써 좌우를 삼으니 比는 그 보필하는 것이다. ②坤의 신하가 순하게 돌아오니 아랫사람이 순하게 따른다고 한다.

② 剛이 득중했다는 것은 坎이다. 상하가 응한다는 것은 二爻

13) 주역, 설괘전 5장, p. 286. “帝出乎震”

14) 虞翻은 艮이 종묘가 된다고 하였다.

15) 주역, 설괘전, 5장 p. 286. “勞乎坎”

의 柔와 五爻의 剛이다.

③ 兩互卦는 剝이 되는데 艮의 길이 미혹되니 그 도가 궁하다. 坎은 곧 통한다. ①도가 궁하다는 것이 剝이 됨을 밝힌 것이다.

(3) 象에 말하기를 “땅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이니, 선왕이 이를 본받아 만국을 세우고 제후를 친한다.”고 하였다.

① 괘가 復과 剝으로부터 왔는데, 震은 장자요, 곧 천왕이고, 艮은 소남이며, 제후이다. 艮의 강함이 내려와 드디어 바른 임금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니 坤國의 주인으로써 만국을 세운다. 震의 강함이 올라가 艮山을 이루어 사방의 산을 순회하니 ⑥양쪽의 임금이 서로 만난 것이고, (復과 剝의 兩剛이 五爻에서 만났다) 諸侯와 친한 것이다. 밀접하여 간격이 없음이 마치 땅과 물 같으므로 그 상이 이와 같다.

【생리】 ④ 心陰이 충만하여 하초의 음기와 조화되니 순하여 역상함이 없다. ⑤ 심장의 자리에 水氣가 상승하여 자양하니, 心陰과 心陽이 조화되어 편안하다. ⑥ 하초 명문의 상화가 상승하여 腎陽, 肝陽, 脾陽, 心陽까지 상승하니 양기의 순행이 여러 단계 진행된 상태이다. ④ 양기가 피부 끝까지 발산하였는데 수렴되지 않으면 양기가 소실되어 버린다. 피부는 음기에 의해 보호되어 양기가 허탈되는 것을 막는데 다시 혈분으로 수렴되니 영위의 조화가 이뤄졌다. ⑤ 心이 단정하니 신체가 모두 안정되었다. ⑥ 발산의 극에서 억제하여 다시 수렴된 상이므로 궁한 상태에서 다시 소통된 것이다. ⑦ 명문상화와 말초 끝의 양기가 혈액으로 수렴되어 안정되었다.

【병리】 ⑧ 此는 물이 배 위에 있어 신장염, 복수이니 補中治濕湯으로 치료하고, 變易인 大有는 화가 머리위에 있으니 뇌염이라 淸上蠲痛湯과 瀉火湯을 합방하여 치료한다.

6) 山地剝

(1) 剝은 갈 바가 있으나 이롭지 않다¹⁶⁾.

① 괘를 통틀어 보면 상호에 一剛이 있으니 大艮의 상이 된다. ② 艮은 徑路가 되니(說卦의 문장) 멈추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坤卦에 보인다¹⁷⁾). 따라서, 가는 바를 뚫이 이롭지 않은 것이다.

(2) 象에 말하기를 “剝은 깎는 것이니 柔가 剛을 변하게 하는 것이니, 갈 바가 있으나 이롭지 않음은 소인의 도가 길어지는 것이다. 순하고 그침은 상을 보는 것이니, 군자가, 사라졌다가 불어나고, 차고 또 비워지는 하늘의 운행을 숭상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괘는 乾으로부터 말이 암아 姤에서부터 갔으니(遷否觀) ⑥ 양이 안에서 음의 깎임을 받은 것으로 유가 강을 변화시켰다.

② 艮은 소인인데, 遯으로부터 가서 소인이 길을 얻으며 나아가 박이 되었다. 그 길은 大艮이므로 극히 길며, 소인이 커가는 것이다. 剝의 상을 보면 ⑥坤의 순함이 艮으로 멈춤이니 가지 못한다.

③ ⑥양이 사라지는 즉 음이 불어나고, 乾이 차면, 坤이 허해진다. 이것은 四時의 순서이니 天道의 행함이다. 군자는 반드시

16) 剝, 不利有攸往.

17) 坤卦의 앞은 剝卦이다. 剝은 상괘가 艮이고(山地剝) 艮은 경로가 된다(說卦의 문장). 경로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으니(길을 잃는 까닭) 앞에는 미혹하여 길을 잃는다고 하였다(剝의 上九 역시 艮이니 길을 잃는다). 坤의 後는 復이다. 復은 하괘가 震이니(地雷復) 震은 大道가 된다. (說卦의 문장) 또한 사람의 주인이 된다(임금이 震에서 나온다). 후에는 순하게 그 주인을 얻는다(“先迷後得主” 坤卦 卦辭해설).

이 도를 존중하고, 숭상하는 고로 진퇴존망의 까닭을 안다.

(3) 象에서 말하기를 “산이 땅에 붙은 것이 剝이니, 윗사람이 이를 본받아 아랫사람에게 후하게 하여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剝의 근본은 姤이다. 姤의 시기에 위로는 五陽이 있어 두텁고, 아래는 一陰으로 얇았으나, 遯으로부터 가서 매번 위를 짊어 이로서 아래가 두터워졌다. 坤의 두터운 상이다. 짐가 되고, 觀이 되고, 剝에 이르면 위로 一陽이 멈춰 아래에 쌓인 것이 극히 두텁다. 艮은 성음이 되니 바깥으로 방어함이 있다. 또한 ⑥艮의 상호가 강해서 오두막을 막아주는 덮개가 되니 坤이 이로서 편안하므로¹⁸⁾ 가히 머물러 거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아래가 후하여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② 坤土는 본래 두터운데 산이 또한 붙어 있으니 두터움의 극치이다.

【생리】 ④ 12辟卦의 四時의 상은 장부, 경락이 四時의 순행 법칙에 따라 소장하는 것을 나타낸다. 내부에는 음기가 점차 차올라 양기가 말초의 피부, 주리 끝에 이른 상이다. 이러한 상은 하초의 명문에서 출발한 삼초의 작용이 말초 끝까지 이른 상과 유사하다. 발산의 극에서 억제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발산될 수 없다. ⑥ 음기가 치성하여 양기를 피부 끝까지 밀어냈다. ⑦ 발산의 힘이 소진되어 相火의 소양지기가 없다. 발산이 끝난 후 중하초는 순하여 조용하다. 만약 相火가 동하여 기가 상승한다면 몸에 해로운 것이다. ⑧ 陰陽消長과 氣機의 승강은 자연의 법칙으로 의자는 이를 이해하고,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⑨ 말초에서 방어작용을 하는 衛氣는 剝疾滑利하여 사기에 대항한다. 衛氣의 기능이 충실하면 내부의 담겨져 있는 모든 장부의 기능이 편안하다.

【병리】 ⑩ 장구하다. 노인은 회생치 못한다. 山地剝은 五陰이 盛하여 一陽이 탈락하는 상이니, 一陽마저 剝落되면 全陰之人으로 쉽게 죽는다. 고로 瓊玉膏나 鹿茸大補湯이나 延年益髓不老丹으로 미리 보하면 혹 기사회생하여 수명을 늘릴 수 있다.

5. 一陰之卦의 추이과정

표 4. 一陰之卦의 추이과정

☰	☷	☰	☷	☰	☷
天風姤	天火同人	天澤履	風天小畜	火天大有	澤天夬

1) 天風姤

(1) 姤는 여자가 씩씩함이니 여자는 취하지 말라.

① 震은 장남으로 震이 乾의 위에 있는 것이 大壯이다. 巽은 장녀로써 巽이 乾의 아래에 있는 것은 女壯이다. ‘女壯’이라는 것은 장녀를 이르는 것이다. 또한 反易의 법으로는 壯가 전도되어 姤卦가 된다. ② 夫의 때에 兌女가 젊고 어린데, 전도되어 姤卦가 되니 巽女로 크게 되었으니 여자의 씩씩함이다. 大壯에서 보면 양이 나아가 사후에 이르면 비로소 ‘壯’하다고 말한다. 음이 커서 ‘壯’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니 음을 억압하려는 의미가 있다.

18) 좌전 畢萬의 점사.

② 乾의 初剛은 본래 復卦의 一陽, 震男이다.(즉 天根이다) 姤女의 初爻는 震男이 망하면서 온다. 震과 巽은 본래 짝이 되는데 ⑥아내가 지아비를 무너뜨린 것이다. 고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2) 象에 이르기를 “姤는 만나는 것이니, 柔가 剛을 만나는 것이다. ‘勿用取女’는 가히 더불어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니, 모든 만물 빛이 나는 것이오. 剛이 中正을 만나니, 천하에 대도를 행하는 것이니, 姤의 때와 의의가 크도다.”고 하였다.

① 음이 자라나서 양이 소멸하고, 여자가 자라나서 남자가 소멸하는 것으로 六震이 점점 망하는 것이다. 세력이 양립할 수 없으니 더불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천지는 음양이고, ‘品物’은 괘획이다. 흑과 백이 섞여 이로서 나중에는 사물이 채택되어 문채를 이루니 ③乾의 시기에 순수한 양이었을 뿐이었다가 지금 음양이 서로 만나 모든 만물이 빛이 난다.

③ ‘中正’이라는 것은 二爻와 五爻가 모두 강한 것이다. ‘大行’은 바람이 하늘아래에서 행하는 것이다. 巽은 명령이 되니 소위 행하는 바는 천명이다.

(3) 象에 이르기를 “하늘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姤이니, 君后가 이를 본받아 명령을 내려 사방을 깨우치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乾왕이 巽으로 명을 내리니, 또한 손은 베푸는 것이 된다.(諸家易) 이것이 명을 내리는 것이다. 乾은 서북이고, 巽은 동남으로 ⑥巽은 兌口를 아래로 향한 것으로 모두 손으로써 고한다. 즉, 사방을 깨우치는 것이다. 姤는 一陰이 생하는 오월의 卦이므로 월령에 이르기를 하짓날 명을 내리는 것이 사방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바람이 하늘의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명이 사방에 내려지는 상이다.

【생리】 ④ 姤는 五陽一陰의 상으로 심장에 해당하니 기후의 하지와 같다. 一陰이 비로소 생하여 심양의 기름역할을 한다. 兌는 심포의 상으로 기관의 외곽에서 수렴작용을 하는 外皮의 상이다. 하초에서 수렴되면 남자의 하단전, 여자의 자궁에 해당하는 상이다. 심장은 발산의 대표장기이나 수렴없이 발산, 추동할 수 없다. ⑥ 心陰이 하초의 腎陰을 의지하여 심장을 유지시키는데 만약 심장에 음기가 지나치게 성해지면 심양이 약해져 심장의 본래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③ 인체에서 순수한 양은 腎精에 대비되는 心君火이다. 心君火는 不寒不熱의 ‘정신적 불’인데 실제 자연계에 순수한 양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음양의 기운이 편차를 가지면서 섞일 때 비로소 오장육부가 생기고 肥瘦黑白長短의 형체가 나타난다. ④ 심장은 그 성질이 강건하여 陽中の 陽臟이다. 심은 군주기관으로서 모든 장부의 기능을 총괄하므로 天命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병리】 ⑤ 姤는 上乾下巽으로 一陰이 五陽에 지나치니 女德이 바르지 못한 것이 심하다. 고로 鍊陰키 위하여 鍊陰煎으로 치료한다. ⑥ 반역으로 뒤집어 보면 巽이 兌가 되어 오히려 一陰을 향해 五陽이 기를 분출시키는 상이 생긴다. 심장의 기능이 역행했을 때 手足의 汗出과 盜汗이 있을 수 있다.

2) 天火同人

(1) 사람이 들에서 같이 하니 형통하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우며, 군자의 바름이 이로우다.

① 괘는 姤卦와 夬卦로부터 와서, 姤卦의 一陰은 아직 坤의 고을을 이루지 못하였고, 夬卦의 五陽은 이미 坤의 고을을 멸하였다. ④고을의 땅이 아니면서 위로는 乾天을 싣고, 또한 二爻는 地面이 되니 그 象이 들임을 알 수 있다. 乾族 五陽이 회동하니 하괘 離에서 서로 본다. 같은 사람들이 들에 있다. 또한 들이라는 것은 무례하다. 공자 이르기를 예악보다 먼저 나아가면 ‘野人’이라 하였다. ⑥ 姤卦와 夬卦의 때에 종족의 부류가 서로 모여 예문으로써 하지 않다가 들에 이른 것이다. 同人으로 추이한 즉, 離文이 찬연하고, 아름답게 모여 합하며¹⁹⁾ 들에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다.

② 아름답게 모여 합하는 것은 ③二, 五爻가 역시 응하여 그 점이 형통하다는 것이다.

③ 夬가 夬卦로부터 왔는데 夬卦의 乾人(下乾의 二爻)이 평온하게 세 개의 강호를 건너는데 강호를 건너는 것은 험한 것을 건너는 것과 같다. 夬卦의 상괘인 兌澤을 건너 들의 밖에 이르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했다.

④ 夬卦의 오강은 본래 모두 震이었던 군자이다. ④柔가 내려와 離괘를 이루니 坎位(伏體)가 견고하니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어 군자의 일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

(2) 象에 말하기를 “同人은 유가 제자리를 얻었으며, 또 중도를 얻어 건에 응하는 것을 同人이라고 한다. ‘同人于野亨利涉大川’은 乾의 행함이오, 문채나게 밝고 강건하며, 알맞고 바르면서 응하는 것이 군자의 바름이다.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과 통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姤의 시기에 음이 一爻에 있어 柔가 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夬의 시기에 음이 상효에 있어 柔가 중을 얻지 못했다. 추이하여 ③同人이 된 즉 자리와 중을 모두 얻었다. 위와 더불어 五爻와 응하니 乾에 응한다고 하였다.

② ‘乾行’이라는 것은 夬에서 乾人이 兌澤을 건너가는 것을 이른다.

③ 군자가 일을 주관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해야 하는 고로 일은 바른 것이 된다. 貞과 正은 모두 諧聲이다²⁰⁾.

④ ‘志’는 離虛이다. 上乾下離가 천하의 뜻이다. 문채나게 밝게 하고, 건장하게 행하면 천하의 뜻에 통할 것이다.

(3) 象에 말하기를 “하늘과 불이 함께하는 것이 동인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같은 종류끼리 분류함으로써 물건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① 종족은 乾의 무리이다. 夬가 夬卦로부터 왔으니 강이 안에 서부터 밖으로 갔다. 하괘 乾의 종족과 떨어져 이미 저쪽에 이르렀는데 상괘가 다시 乾이니 종족과 또 모인 것이다. 이것을 같은 종류끼리 분별한다고 한다. 夬의 시기에 五陽이 서로 연결되어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추이하여 同人이 된즉, 분별할 수가 있어 만물이 서로 보너(離의 덕) 이것이 물건을 분별하는 것이다. ① 즉

19) 離의 卦德이다. 「乾卦 文言傳」, “亨者 嘉之會也”

20) 다산은 위와 같이 韻法을 易經해석의 방법으로 삼았는데, 「주역사전 독역요지」에서 察韻이라고 하였다.

성질로 類를 모으고, 물건으로 무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다.

② 공자가 이르기를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을 둔 것은 아래와 친하다고 하였다. 蘇軾은 이르기를 물이 땅으로 가니 비가 되고, 불이 하늘로 가니 同人된다고 하였다. 表記에 이르기를 물과 흙은 친하나 존귀하지 않고, 불과 하늘은 존귀하나 친하지 않다고 하였다. 팔괘의 상이 하늘과 불이 하나의 부류이어서 우뢰와 바람은 여기서 생하고, 땅과 물은 하나의 부류이어서 산과 못은 여기서 이뤄진다. 군자가 하늘과 불이 서로 더불어 함께 하는 상을 보고 종족이 모이지 않을 수 없음과 사물이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았다.

【생리】 ① 고을이 이루지 못해 들의 상이 되었다는 것은 음기가 있으나 비유기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양기가 강하므로 육부 가운데 소장의 상과 유사하다. 양 가운데 음이 하초에 가지런히 간직되어 있으니 남자의 하단전, 여자의 자궁의 상이다. ② 심장의 발산과 심포의 수렴사이에서 하초에 腎陰과 腎陽이 충실하다. ③ 心陽과 腎陰이 서로 응하여 수화기제가 이뤄진다. ④ 伏體는 인체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수화기제의 상인데, 인체는 본래 수화기제없이 생리기능을 영위할 수 없다. 삼복체인 坎위에 강건한 기운이 생기니 의지가 굳고, 神이 확고한 상이다. ⑤ 二와 五와의 응함은 상단전과 하단전의 조화에 비유할 수 있다. 精과 神이 서로 자기 자리에서 응하여 있다. ⑥ 분별정탁하는 소장의 기능과 같다. 몸에 필요한 곡기는 흡수하고, 배설해야할 탁기 중에 청한 것은 방광으로, 탁한 것은 대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한다.

【병리】 ① 좋지 않다. 離火가 하늘과 함께 위에 같이 있으니 열병, 즉 전염병에 조심해야 한다. 荊防敗毒散에 黃連, 生地黃, 牛蒡子 各 1錢, 黃芩 5分을 가미하여 치료한다.

3) 天澤履

(1) 범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 형통하다.

① 夬가 夫로부터 와서 夬의 시기에 夬를 통틀어 보면 兌가 된다. 이것은 큰 호랑이다²¹⁾. 一陰이 상호에 있어서 호랑이의 머리를 밟는다.(夬의 오, 육효는 본래 震의 다리가 된다) 추이하여 履가 된즉 하호괘 離가 있으니 호랑이의 무늬가 빛난다. 乾의 머리가 위에 있고, 一陰이 밟은 바가 이내 호랑이의 꼬리이다. 履는 호랑이의 꼬리이다. 兌가 강을 타니 군자가 ① 乾의 九三과 같이 그것을 위태로이 여겨 호랑이를 밟듯이 강을 올라타는 것을 경계하였다.

② 乾의 사람이 위에 있고, 호랑이의 입이 우러러 벌려져 있다(兌는 입이 된다). 상호괘인 巽의 넓적다리가 밟고 있는바 ③ 삼가 호랑이의 꼬리를 얻었으나 입을 제어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반드시 깨무는 기세이나 깨무는 것은 입을 다루는 것이지, 입을 높이 여는 것이 아니다.兌는 위가 열렸다. 군자의 뜻이 전전 금강한 것이, ④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으나 재앙에 이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그 상이다.

③ 후는 離의 덕인데 가운데 離가 있다. 夬가 夫로부터 와서 柔가 아래로 내려오고 드디어 상호와 더불어 응하니 그 덕이 형통하다.

④ ①兌는 서방 백호의 자리에 있다. 곡례에 이르기를 左靑龍

하고 右白虎이니, 우측은 서쪽이다. 震은 용이 되고(說卦의 분장),兌는 호랑이가 된다.

⑤ 學稼가 이르기를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것은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근본적으로 한가지 뜻이다. 夬의 시기에 乾의 얼음이 심히 두터웠는데 지금은 얼음이 얇아져서 얇은 얼음을 밟은 것이다.

(2) 象에 이르기를 “이는 柔가 剛을 밟는 것이니, 기꺼이 乾에 응하는 지라. 이러한 까닭에 범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아니하니, 형통하다는 것이다. 剛이 中正을 얻어 帝位에 올라서 병폐가 없으면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① 夫가 추이하여 履가 되니 오히려 二陽을 올라타서 柔가 剛을 밟았다.

② 剛하고, 中正한 것은 夬형이 바른 건이다. 夬의 시기에 乾王이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 ① 乾이 위로 올라타서 離를 이뤄 다스리며(하호괘), 제왕의 자리를 밟고 있으니 오랜 병은 아니다.(離는 기쁨이 된다) 離의 문장이 찬연하니 그것이 광명이 아니겠는가!

(3) 象에서 말하기를 “위에는 하늘, 밑에는 못이 있는 것이 履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립한다.”고 하였다.

① 夬가 夫로부터 와서 兌의 一陰이 乾에 의거해 있다. 하늘의 위에서(釋天夫) 五陽을 올라타고 상하로 분별됨이 없다가 곧 바로 그 전체 夬를 구부러(大兌의 상) 乾天의 아래로 내려오니 곧 離의 禮가 빛난다. 巽의 겸손함이 이내 흥하니(상호괘) 상하의 사이가 離로써 나누어진다. 離는 구별하는 것이니, 상하를 분별하는 것이다. 夬의 시기에 五陽이 서로 연결되어 正體와 互體를 모두 봐도 乾君이 크게 많으니, 兌의 一陰, 백성이 역시 불복하였다. 추이되어 離가 된즉, ② 단 하나의 乾君이 높아 음이 이내 상호로 가서 아래에 앞드리니 離의 뜻이 크고, 밝다(大離의 상이다). 왕명을 우러러 따르니(상호괘의 巽은 命이다) 백성의 뜻을 정립한다.

【생리】 ① 兌는 서방의 金氣이며, 폐, 대장에 해당하는데, 위로 하늘이 있으니 폐에 해당한다. ② 肺陰이 말초에서 응결되어 있다가 하강하여 대기와 호흡하게 되니 심폐가 조화된다. ③ 神明이 강건하여 오장육부를 부리니 원활하게 작동하여 治節이 잘 이뤄진다.

【병리】 ① 대체로 건강한 편이나 履는 兌口가 剛에 밝히니 호흡기 천식병이다. 定喘湯으로 치료하고 후병엔 消火補陰湯으로 치료한다. ② 폐기가 상초에 올라있지 못하고 하함되어 울체되었다. 위태로운 상이다. ③ 태의 위가 열려 울체되어 있던 폐기가 발산하려 하니 위태롭지만 예후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

4) 風天小畜

(1) 小畜卦는 형통하니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내리지 않음은 나의 서쪽 교외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① 小畜卦는 姤卦로부터 왔는데, 柔劃이 四位에 가서 자리를 얻고, ② 初爻와 四爻가 그 응함을 잃지 않아 마침내 기쁘게 모이니(상호괘가 離이다) 그 점이 형통한 것이다.

② 또 夫卦로부터 왔는데 夫卦일 때엔 坎이 아래가 剛劃으로 막혀 있어 坎의 비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巽下絶로 아래가 비록 뚫렸으나 다시 위가 강획으로 막혀 비를 이루지 못하니 이것이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내리지 않음’인 것이다. ③ 음기가 하

21) 다산이 보입한 불상

늘 위에 있고,兌와巽의 소통되지 않은 모습으로 坎이 촘촘하게 막힌 것을 보이니 '구름만 잔뜩 낀 것'이다. 구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비라고 한다.

③ 小畜卦는 姤卦로부터 왔는데 巽으로 결제하여 위로 乾天에 제사드리니, 그 상이 교외가 된다. 이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를 반드시 교외에서 행한 것에서 유래한다. 또 ④ 夬卦로 부터 왔으니 이것이 '그 구름이 나의 서쪽 교외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상괘인 巽이 바람이기는 하나 서풍은 비를 이루지 못하니 그렇다면 비록 하늘에 기도한다 한들 어찌 이를 수가 있겠는가!

(2) 象에 이르기를 "小畜은 유가 위를 얻어 아래 위가 이에 응하는 것이어서 小畜이라 한다. 건장하고 순순하며 강이 득중하여 뜻을 행하니, 이에 형통할 것이다. '密雲不雨'는 아직도 숭상해 가는 것을 뜻함이고, 自我西郊'는 베품이 아직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夬가 夬로부터 와서 ④ 柔가 가서 陰位에 거하니 이것이 그 위를 얻음이다. 드디어 초효와 더불어 응하니 상하가 응하는 것이다. 이효와 오효에 모두 강효가 있어 離의 뜻이 밝고(상호괘) 강한 가운데 뜻이 행해진다.

② ⑥ 숭상해 간다는 것(尙往)은 위로 간다는 것이다. 이를 일러 夬의 四爻 剛이 위로 가서 巽이 되고, 坎은 이루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반드시 坎의 비를 이룬다고 하는데 어째서 인가? 兌는 본래 위쪽에 틀이 있다. 또한 그 아래에 틀을 만든즉 어찌 坎괘가 아니겠는가!

③ ③ 巽이 비록 베풀고자 하나 坎을 이루지 못해 아직 베풀어지지 못했다.

④ 夬의 덕이 기르는 것이다. 쌓아서 새버리지 않은 고로 그 상이 구름이 잔뜩 끼어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2) 象에 이르기를 "바람이 하늘 위에서 부는 것이 小畜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분체하는 덕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였다.

① '巽'는 자원이 '畜'에서 유래하는데, 오로지 하나로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夬가 姤와 夬로부터 와서 본래 乾의 덕이 있었는데 추이하여 小畜이 되니 ① 離의 문체가 빛난다. (大體가 離이다) 이로써 문체나는 덕이다. 夬가 마침내 乾을 잃지 않았으니 그 덕이 乾처럼 순수한 하나이고, 아름다움이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문체나는 덕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였다.

【생리】 ④ 心陰이 상승하여 상초에 심기능이 온전하다. 하초의 양기와 상초의 心陰이 서로 조화되니 좋다. ⑥ 가장 바깥에 음기로 덮여 내부의 오양을 精化시키려는 夬의 상태에서 표음이 약간 하강하였으나 완전한 精으로 찌지지 않았다. 脾陰이 피부, 주리끝까지 상승하였다. ③ 서쪽의 금기이니 肺와 皮膚, 腠理, 外膜이다. 表陰이 하강하면서 주리가 소통된다. ④ 음장부인 폐와 비가 음위의 제자리에 있고, 명문상화의 추동을 받으면서 심신의 위인 이, 오효가 각각 강하니 좋다. ⑤ 상괘가 坎이 된다는 것은 수화기제가 되었음을 말하는데 아직 精化되지 못했다. ① 본래 심과 심포의 관계는 양의 극인 심화를 조절하여 精化시키려는 심포의 상호작용이다. 내부에 심장의 상이 이뤄지니 양기의 추동력이 힘있다.

【병리】 ③ 小畜은 風在頭腦上하니 뇌신경통이라. 淸上蠲痛湯에 生薑 1錢, 梔子炒 5分, 乳香, 薄荷 각 2分을 가하여 치료한다.

5) 火天大有

(1) 大有는 크게 형통하다.

① 夬가 夬로부터 왔는데 夬의 五陽은 ④ 본래 震으로부터 쌓여서 왔으므로 본래는 순수한 乾이었다. 즉, 착함이 커나가는 것이다. 또한 姤로부터 왔으므로 柔가 오효의 존귀한 자리를 얻었으니 상괘가 離가 되어 합함으로써 아름답게 모인 것이다. 크게 형통한 것으로 君道의 大道이다.

(2) 象에 이르기를 "大有는 柔가 높은 지위를 얻었고, 크게 중용지도를 가져 상하가 응하고 있는 것을 大有라고 하였으니, 그 덕으로 보면 강건해서 문명하고 하늘에 응하여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크게 형통하다"고 하였다.

① 姤의 시기에 柔가 하괘의 一陰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었으나 ⑥ 지금은 오효로 올라 있어 유가 존위를 얻었다.

② ③ 크게 중용지도를 가졌다는 것은 이강이다. (陽—이 크다) 이효와 오효가 서로 응하니 상하가 응한다.

③ 離의 중심이 乾에 응하니 夬의 근본인 震은 이미 '體仁'하고, 추이하여 離가 되니, 離는 이내 '嘉會'하다. ④ 봄이 오고, 이어 여름이 오듯 때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3) 象에 이르기를 "태양이 중천에 높이 올라 있는 것이 大有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악을 막고 선을 찬양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따른다."고 하였다.

① 夬가 夬로부터 왔는데 ⑥ 兌의 一陰이 위에 있는 것을 막아서 내려가게 한 것이 악을 막는 것이다.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을 높여 올라가게 한 것이 선을 찬양한 것이다²²⁾. 또한 姤로부터 와서 乾의 하늘이 명에 공손하니 본래 순할 수 있다. 추이하여 大有가 되니 천명이 위에 있고, 乾君이 아래에 있으니 천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상괘의 離가 밝게 빛나니 이것이 아름다운 명이다.

② 大傳에 大有 上九의 뜻을 해석하여 이르기를 "신의를 밝고, 순천함을 마음에 생각하고(이것이 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어진사람을 숭상하여야 한다(이것이 선을 찬양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大傳과 더불어 뜻이 같다.

【생리】 ④ 처음 명문의 양기가 상승하여 종래에 충만한 양기를 갈무리하여 정화시키는 심포의 단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처음의 발단이 착함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심장의 기능이 충분히 활동하는 상이므로 여름의 상이다. ⑥ 하초의 음기가 心陰으로 상승하였다. ③ 心腎의 응함이 순조로우면 중용의 덕이 생긴 것이다. 수화의 균형된 순환을 의미한다. ④ 四時의 순환처럼 장부의 기능도 木火金水의 순환을 띤다. ⑤ 표음의 수렴이 과하면 양기가 울색되니 그 울색을 해소시킨다는 뜻이다.

【병리】 ③ 고열성의 두통(뇌신경통)이니 淸上蠲痛湯에 生地黃, 梔子炒 各1錢, 黃連炒 5分하여 치료한다. 동시에 朱砂, 麝香, 龍腦末을 藥水에 調服한다.

6) 澤天夬

(1) 夬는 왕의 뜰에서 드날림이니, 미덥게 부르짖되 위태로움이 있다. 읊으로부터 고향이요. 군사에 나아가는 것이 이롭지 아

22) '揚'은 들어올린다는 것이다.

23) 繫辭上傳 12장 履信思乎順, 又以尚賢也

니하며, 가는 바를 돕이 이롭다.

① 兌는 履卦의 天과 澤이 交易된 卦이다. 履卦가 괘됨에 있어서 兌妻는 안에 있고, 乾의 세 계단들이 아래로 갔다. 그 땅이 단단한 소금밭이다(說卦의 상24). 그 상은 뜰이다. 乾王이 위에 있으니 왕의 뜰이다. 서로 교역하여 兌妻가 된다. ②왕의 뜰에서 부터 兌妻가 들어 올려져서 빛나게 드러나는 위치에 거처하니 왕의 뜰에서 드날림이다. 드날림은 兌妻를 올린 것이다.

② 履卦가 교역하여 兌卦가 되는데 삼효와 육효가 오로지 응하여 강유의 응함을 잃지 않았다. 이로써 믿음이 있는 것이다. 履卦가 교역하여 兌卦가 되고, 兌口가 경고하니 이것이 미덥게 부르는 것이다. ③二剛의 위에서 五剛의 위로 올라오니 강을 올라타이 더욱 심하다. 이처럼 높으니 위태로움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나라가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 兌妻가 강을 올라타 상하로 경고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아직 없었다.

③ 兌는 復卦로부터 나아가서 왔는데(臨, 泰, 大壯, 夬) 復의 초효 震帥가 그 五陰 坤의 대중을 거느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니 장수가 행동하는 상이다. 적을 향해 나아가듯 양이 점차 자라나는데 매번 한 걸음씩 나아가니 반드시 그 五陰 대중이 차례로 죽어 臨이 되고, 泰가 되어 兌에까지 이르니 坤의 대중이 다 망하여 一陰이 오직 남는 것이 죽고, 상하는 것으로 장수의 상이다. 예부터 장수가 나아가 죽이면 반드시 부고하도록 했다. ④상괘의 兌口가 알리는 바가 곧 장수의 告也이다. 본래 坤邑으로부터 고하는 것이 읍으로부터 고함이라고 한 것이다. 그 상이 이와 같으니 이롭지 않은즉 군사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即戎’은 장수가 나아가는 것이다.

④ 가는 바를 돕이 이롭다는 것은 행동하는 일의 점이다. 復卦로부터 震道가 와서 大壯卦(역시 상괘가 震이다)에 이르기까지 막히는 것이 없는데 쉬지 않고 나아가 兌卦에 이르면 震道가 이미 끝나고 兌和에 이른다. 가는 바를 돕이 이롭다

⑤ 漢代의 제도를 살펴보면 왕궁의 안에 모두 소금밭이 얹혀 있었는데 예부터 내려오는 유적이다. 소금밭이라는 것은 소금물을 먼지에 뿌려서 된 것이다. 兌卦가 단단한 소금밭이(說卦의 글)이니, 그 상이 왕의 뜰이다.

⑥ 泰卦의 上六에 이르기를 ‘군대를 쓰지 말라. 읍으로부터 명을 고하는 것이다.’25)라고 한 것은 이것도 역시 죽이는 장수의 상인 것이다.

(2) 象에 이르기를 “兌는 결단하는 것이니,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이니, 건장하며 기뻐하고, 결단하되 화합하게 한다. ‘揚于王庭’은 유가 다섯 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오, ‘孚號有厲’는 그 위태함이 이에 빛이 난다는 것이오, ‘告自邑不利即戎’은 숭상하는 바가 이에 공하기 때문이오, ‘利有攸往’은 강이 자라서 이에 끝나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復卦에서부터 강이 자라나서 유가 점점 소멸되니 강이 유를 결단내는 것이다.

② 결단하되 화합하는 것은 ‘義之和’이다.(兌는 利가 된다) 공자가 乾卦에 대해 이르기를 ‘保合大和’라고 하였다(兌의 화합하

여 乾이 된다).

③ 柔가 五剛을 올라탔다는 것은 履가 교역된 것을 밝히는 것이다. 履의 시기에 柔는 二剛을 올라탔었으나 교역하여 兌가 된 후 그 올라탄 것이 매우 심하다.

④ 위태로운 것은 강을 올라탄 것을 근심하는 것이다. 履의 시기에는 위태로움이 은미했으나 드날려서 올라가지 그 위태로움이 드러났다.

⑤ 숭상하는 바는 양이다. 양이 점차 올라가서 곤의 대중이 비로소 망했는데 숭상하는 바가 이내 극에 다달았다.

⑥ 줄어지고, 늘어나는 세력이 五로써 마치니 강이 자라나는 것이 이내 끝난다. 육으로 나아가면 純剛이니 자란다고 말할 수 없다.

(3) 象에 이르기를 “못이 하늘위에 있는 것이 兌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녹을 널리 베풀어 하민에 미치게 하며, 덕에 거하여 껴림을 법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① 兌는 姤의 반대괘이다. 姤의 一陰이 가장 비천한 곳에 거처하다가 올라가서 존귀하게 되었다. 상괘가 兌가 되서 제사에 먹는 음식을 더하는 것이고, 兌의 하괘 巽은 베푸는 것이므로 녹을 베풀어 아래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양이 나아가 五爻에 이르러 강의 덕으로써 드디어 존귀한 자리에 위치하니 이것이 덕에 거하는 것이다. 중심을 낮춰 兌가 되니 덕에 거한즉 껴리게 된다. 두려워하고, 삼가는 상이다.

【생리】 ① 하괘의 兌는 인체에서 횡격막에 해당한다. 하초의 양기를 응축시켜 정화시키는데 이것이 상승하여 상초의 외막, 즉, 피부, 주리가 되었다. ② 兌는 嬌臟이라 상해를 입기 쉬운 장기이다. ③ 양기가 차오르고, 음이 거의 소진될 시기에 상초의 폐기가 宣發작용이 강하다. 속강이 필요한 시기이며, 장수를 쓴다는 것은 계속 宣發시킨다는 의미이다.

【병리】 ④ 兌는 上兌下乾으로 乾陽이 성하고 兌少陰이 물러나니 건의 머리위에 少陰心火가 있다. 혈압이 상승하여 머리에 뇌 신경통이다. 淸上瀉火湯으로 치료한다.

결론

다산 정약용의 「周易四箋」에서 풀이한 卦효사의 의미를 생리·병리에 응용해 봄으로써 역학의 의학적 응용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점을 얻었다.

주역의 卦·효사는 卦와 효의 변화 속에서 생기는 상을 토대로 천문·인사·지리의 다양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구성의 핵심은 12辟卦·再閏之卦·50衍卦의 구조이다. 「周易四箋」에서는 주이·물상·호체·효변의 역리사법에 의해서 易辭가 지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卦효사에서 보이는 실례들은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卦상을 유추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一陽之卦는 신정을 기화시키는 삼초상화의 변화과정을, 一陰之卦는 심양을 수렴하는 심포의 精化과정을 표현한다. 二陽之卦는 兌·비·방광의 작용으로 비교적 경정한 수액대사과정을, 二陰之卦는 간·위·소장의 작용으로 수액대사 중에 중탁한 영혈의 대사과정을 표현한다. 三陽之卦는 담의 결단작용에 의한 시작을, 三陰之卦는 대장의 탁음 배설작용에 의한 종결을 나타낸다.

24) 갖벌로 해석할 수도 있다.

25) 勿用師, 自邑告命.

一陽之卦인 復과 夬의 추이과정을 보면 한 개의 양효가 추이하면서 坎水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인데 이는 명문상화가 작용하여 決瀆之官으로서의 삼초기능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다. 一陰之卦인 姤와 夬의 추이과정을 보면 한 개의 음효가 추이하면서 離火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인데 이는 심포의 精化작용을 상중하초에서 이뤄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주역계사전 강의록, 김용욱.
2. 아산학회편, 주역, 소강, 2002.
3. 임명진·강정수, 茶山의 易學 해석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3권 2호, 2004.
4. 박주병, 周易反正, 서문당, 2002.
5. 정약용, 周易答客難, 서울, 아름출판사, 1995.
6. 정약용, 周易四箋 卷一, 민창문화사, 1995.
7. 周易.
8.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9. 朴錫紀, 삼초의 장부계통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10. 송점식, 醫學輯要, 문경출판사, 1992.
11.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12. 서석구, 역리철학, 1977.